

벤투호 유럽 원정 빌드업·조직력 과제 남겼다

A매치 500승 달성·손흥민 황의조 필승공식 확인
코로나19 악재로 수비라인 약점 조직력 하락 실점
내년 3월 월드컵 예선... 빌드업·통패스 조화 필요

벤투호가 출범 이후 첫 패배를 안겼던 '악연'의 카타르를 상대로 1년 10개월 만에 설욕에 성공하며 한국 축구의 A매치 통산 500승 금자탑을 쌓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 아레나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과 황의조(보르도)의 연속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948년 런던 올림픽 1차전에서 멕시코를 5-3으로 제압하며 A매치 첫 승리를 따낸 한국 축구는 72년 만에 통산 500승(228무 201패)을 달성했다.

더불어 카타르와 만나 최근 2연패의 수모를 당했던 한국 축구는 2016년 10월 6일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카타르를 3-2로 꺾은 이후 4년 만에 승리를 맛보고, 역대 전적에서는 6승 2무 3패로 우세를 이어갔다.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선 벤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6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1승 1패(멕시코전 2-3패·카타르전 2-1승)의 성적표를 거뒀다.

하지만 1년 만에 나선 두 차례 원정 A매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는 불운 속에 '빌드업 조직력 끌어올리기'라는 절실한 과제를 남겼다.

2경기에서 4골을 넣었지만 실점 역시 4골이나 허용한 것은 아쉬운 결과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벤투 감독은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중앙 수비지원으로 김민재(베이징 궈안), 박지수(광저우 헝다)를 뽑았지만,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원정에 데려오지 못했고, 좌우 풀백인 홍철(울산)과 이용(전북)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악재가 겹쳤다. 여기에 왼쪽 풀백 김진수(알나스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벤투호는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이

후 실시한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양성 반응이 나오며 평가전 실행 여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소집 때부터 핵심 수비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데다 오른쪽 풀백 김민환(부산)은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벤투호의 수비라인은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벤투 감독은 멕시코전에는 수비를 강조한 스리백(3-back) 전술을 가동했고, 상대적으로 앞선 카타르전에는 포백(4-back) 전술로 나섰다.

수비조직력이 떨어지다 보니 벤투호의 빌드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표팀의 빌드업 과정에 익숙지 못했던 원주도와 권경원은 잦은 패스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했다.

벤투 감독은 멕시코를 상대로 독심(?) 있게 빌드업을 전후반 내내 시도했지만 결국 황의조(보르도)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 역전패를 떠안았다.

두 번째 평가전에서도 벤투 감독은 빌드업을 앞세워 공격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자기 진영을 먼저 지키고 역습에 나선 카타르의 전술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야만 했다.

벤투 감독은 후반 들어 K리그1 MVP에 빛나는 손준호(전북)를 교체 멤버로 투입하며 전술에 변화를 줬다.

중앙 미드필더 손준호의 발끝에서 최전방 공격진을 향한 날카롭고 빠른 통패스로 카타르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빌드업과 통패스가 적절하게 분배되면서 벤투호의 공격 과정은 단순함과 느린 공격을 벗어나 속도감을 불릴 수 있었다. 2경기를 치르는 동안 내준 4골 가운데 2골은 빌드업 과정에서 벌어진 패스 실수로 자초한 실점이었다.

내년 3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빌드업과 통패스의 적절한 조화는 벤투호의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1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 아레나에서 치러진 한국과 카타르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카타르 선수들의 수비를 뚫고 드리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코로나 음성’ 축구대표팀 5명 오늘 귀국

벤투는 포르투갈 이동...업원상 파주NFC에서 자가격리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을 마치고 19일 귀국하는 축구대표팀 업원상(광주), 정태욱, 구성운(이상 대구), 권경원, 이창근(이상 상주) 5명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가운데 파울루 벤투 감독과 외국인 코칭스태프는 고향인 포르투갈로 이동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원정 멤버 중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5명의 선수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며 “자가격리 장소는 자택이나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파울루 벤투 감독과 포르투갈 출신 코치진은 귀국하지 않고 포르투갈로 이동한다”라며 “올해 대표팀은 물론 K리그 일정도 모두 끝난 만큼 포르투갈에 머물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FC에 따르면 업원상은 파주NFC에서 2주 격리한 뒤 광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원정에 참여한 태극전사 중 해외 선수들은 현지에서 소속팀으로 복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FC서울, 울산 현대, 전북 현대 선수들도 카타르 도하로 이동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와 직원들은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축구협회는 전세기를 띄워 아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은 5명의 K리그 선수와 김태욱, 마이클 김 코치를 비롯한 축구협회 직원들은 18일 오스트리아를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19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벤투 감독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포르투갈에 체류하면서 월드컵 2차 예선 준비와 함께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PGA투어 복귀’ 고진영 “실전 감각 회복 과제”

내일 펠리컨 챔피언십 출전

올해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에 나서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짧은 거리 샷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실전 감각 회복이 과제라고 밝혔다.

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에서 개막하는 LPGA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 나서는 고진영은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1년 만에 미국 언론과 만났다.

고진영은 작년 11월 25일 끝난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자 고진영은 줄곧 한국에 머물렀다.

고진영은 “작년에는 20차례 넘는 경기를 치렀지만, 올해는 고작 5경기밖에 뛰지 않았다”면서 “실전 감각을 찾는 게 과제다. 쉽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윙 코치를 바꾸고 스윙을 손보고 있는 고진영은 “크게 바꾼 건 없다. 100m 이내에서 치는 샷의 일관성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17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작은 변화는 쉽지만 큰 변화는 어렵다는 걸 느낀다”고 스윙 교정이 어려움도 토로했다.

시즌 막판에야 LPGA투어에 복귀한 이

유도 “새 코치와 함께 교정한 스윙을 LPGA투어 대회에서 점검해보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 도졌던 발목 부상도 지난 6월께 다 나았다는 고진영은 “LPGA투어가 그리웠다. 다시 LPGA투어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고진영과 함께 지낸 캐디 데이비드 브루커는 골프위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열악한 연습 환경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냈다.

고진영의 캐디 브루커는 “필요한 걸 갖춘 골프 코스가 드물었다”고 거들었다.

고진영과 마찬가지로 1년 만에 LPGA투어에 모습을 드러낸 이정은(24)은 “코로나19가 무서워서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정은은 LPGA투어 복귀를 미룬 이유를 “한국에서 경기하면서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아 LPGA투어 복귀가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이정은은 “다음 달에 열리는 US여자 오픈 타이틀 방어를 꼭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진영

조선대 채희수 회장기배드민턴연맹전 ‘동’

단식 3위...유서연·안혜원 여대부 복식 3위

조선대학교 채희수(4년)가 18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내린 2020 회장기 대학실업 배드민턴 연맹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채희수는 여자대학부 단식 8강에서 안동과 학대 김빛나를 2-0(24-22 21-12)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동양대 이지은에 0-2(11-21 14-21)로 지면서 아쉽게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3위를 기록했다.

조선대 유서연(2년)·안혜원(1년)은 여자대학부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앙대 이유지·정휘나를 2-0(21-12 21-15), 동양대 신효주·박현민을 2-0(25-23 21-12)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오른 유서연·안혜원은 안동과 학대 성지영·김빛나에 1-2(9-21 22-20 7-21)로 아쉽게 지면서 3위를 기록했다.

남자대학부 복식에서는 세한대 윤형민·박건호가 3위를 차지했고 박건호는 군산대 박지운과 함께 나선 대학부 혼합복식에서 은메달



채희수

를 추가했다.

박건호·박지운은 8강에서 임상준(세한대)·유서연(조선대)에 2-0(21-15 21-15), 4강에서 김재영(백석대)·김수민(공주대)에 2-0(23-21 21-15)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에서 최용범·성지영(안동과 학대)에 1-2(21-12 18-21 19-21)로 아쉽게 지면서 2위에 머물렀다. 세한대 손종현은 군산대 이현우와 함께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 3위에 올랐다.

일반부에서는 광주은행 최형범이 정복은·윤민아와 나선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천시청 고성연·엄혜원에 0-2(16-21 17-21)로 지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남부대 대학연맹기사격 은·동메달

10m 공기권총 여대부 단체 2위...김혜란 개인 3위

남부대학교 김혜란(1년)이 제32회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혜란은 17일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10m 공기권총 여자 대학부 개인전 본선에서 570점을 기록해 결선에 진출했다.

김혜란은 결선에서 216.4점을 기록, 한국 체대 전민주(240.6·대희신), 충북보과대 신

혜원(235.9)에 이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부대는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 2위에 올랐다.

김혜란(570) 외에 강주경(562), 박나경(560), 정소영(552)이 호흡을 맞춘 남부대는 1,692점으로 충북보과대(1,697)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